

도 쟁점예산 삭감... 지역차별 논란

지방비 부담요구 전액 삭감
 '지덕권 산림치유원' 삭감→
 영주 산림치유원 전액 국비
 동학혁명 기념공원 삭감→
 제주 4·3 공원, 부산 UN 평
 화기념관 등 전액 국비지원

최근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전북의 대규모 주요 사업들과 비슷한 타 시·도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 정부의 지역차별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해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도의 주요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비 부담 요구 등으로 기재부가 국비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산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발표된 '2017년 국가 예산 확보 기재부 1차 심의'에 따르면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에 도가 요구한 100억원은 전액 삭감돼 단 1원도 반영되지 못했다.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으로 지난 2014년 11월 국립화예타를 통과하면서 988억원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이다.
 이후 도는 지자체로 건설·운영 주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축소를 제안(조성비 988억→495억, 운영비 82억→43억)했으나 기재부는 시설비의 지방비 50% 부담, 운영비 전액 지방비 부담 입장을 고수해 올해 예산 50억원은 물론 내년에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수도권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성과퇴출제·임금체계·비정규직 확산 파견법, 조선산업 대량해고 구조조정, 최저임금 일방결정, 한상균 위원장 5년 실형선고, 시드 배치 등에 맞서 전국 250여 개 사업장에서 총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가해 총력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수도권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성과퇴출제·임금체계·비정규직 확산 파견법, 조선산업 대량해고 구조조정, 최저임금 일방결정, 한상균 위원장 5년 실형선고, 시드 배치 등에 맞서 전국 250여 개 사업장에서 총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가해 총력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 4·3 공원과 부산 UN 평화기념관, 부산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등은 각각 712억, 258억, 431억이 전액 국비로 지원돼 정부의 '지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한·중 정상간 합의로 국책사업으로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의 국기별 경협특구 조성사업은 외국인 투자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외곽법에 따른 지방비 40% 부담을 요구하며 내년 요구액 250억원 중 부처반영액 10억원도 전액삭감됐으며 마찬가지로 국책사업인 새만금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도 지방비 50% 부담을 요구

전업농 연령제한 60세 이하로 완화

내달 1일부터 시행... 전국 3만5,000여 농가 혜택 전망

도내 고령화 추세로 전업농의 연령제한이 완화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전업농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던 전업농 연령제한이 만55세 이하에서 만60세 이하로 완화된다.
 이는 내달 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현행 전업농은 연령이 만 55세 이하인 농가만이 신청이 가능해 최근의 농가 고령화와 귀농인, 조기 퇴직자 등 55세 이상 신규 농업경영주 증가 추세에 부합되지 못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6월부터 농가 고령화 현실 등을 반영한 전업농 연령제한 개선을 위해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를 해 왔다.
 특히 도는 지난해 7월 행정부와 도가 공동으로 개최한 규제개혁 플랫폼토론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농가 고령화 현실 등을 반영, 연령제한을 완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연령제한으로 전국 3만5,0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업농으로 선정되면 농지규모화 사업에 참여해 농지매매와 농지 장기임대차 등을 지원받아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농지매매는 10ha를 상한으로 3.3㎡당 3만5,000원 이내에서 연리 1%로 최장 30년에서 15년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지원되며, 장기임대차는 무이자로 5~10년(계약기간) 임차료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가 지원된다.
 개정된 전업농 신청자격은 사업 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60세 이하인 농업인으로서 경영규모가 2.0ha(밭 1.0ha, 시설작물 0.3ha)이상이고,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해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그동안 진입장벽으로 작용되던 전업농 연령제한이 완화돼 다수 농업인들이 농지매매와 농지장기임대차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상용차 20만대 생산기반 조성' 총괄기획위 발족

전북자동차기술원

도내 상용차 20만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가 발족돼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자동차기술원이 '상용차 20만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총괄기획위원회를 발족하고, 도 상용차 산업을 도약시키기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자동차산업은 전북 산업경제를 지탱하는 주력산업으로 국내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5%를 차지하는 상용차 산업 메카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중대형 상용차 생산에 치우치다 보니 연간 생산량이 8만대 수준인 국내 상용차 생산량 19%에 그치고 있어 차종의 다양화를 통한 상용차 생산량 증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와 자동차기술원은 상용차 생산량 증대에 필요한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달 말 '상용차 20만대 생산 기반조성 전략수립'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날 도는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

등 완성차 기업과 자동차부품·특장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 13명과 자동차기술원 전문인력 17명 등 총 30명을 기획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 참석한 도내 부품기업 대표는 "상용차 20만대 생산이 도내 400여 자동차부품 기업의 체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도내 부품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는 2025년 전북 상용차 20만대 생산이 가시화될 경우 관련기업 400여 개사 육성, 고용창출 1만개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여 전라북도 산업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수 원장은 "그 동안 자동차기술원에서는 상용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와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해 왔다"면서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북 상용차 20만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사업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내 시·군 재난 정보 통합 관리한다

'기상관측·재난 예·경보 시설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착수 보고회

앞으로 도내 14개 시·군의 각종 재난 예·경보정보가 통합 관리된다.
 이에 재난대응역량이 향상될지 주목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민안전실장과 시·군 재난담당, 기상청,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기상관측 및 재난 예·경보 시설 통합·연계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연계시스템의 구축' 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연계시스템은 도내 254개의 기상관측데이터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재난경보 발령상황을 통합하고, 위급시 도에서도 재난경보를 직접 발령하거나 재난담당자 및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통합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재난 예·경보시설 통합·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유관기관들과 기상관측자료의 공유 및 공동 활용도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현재 도내에는 전주기상지청과 수자원공사 등이 기상관측장비 26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도는 이들 기관들과 관측 자료를 공유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연계해 광역 단위의 재난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도가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첨단 재난상황관리시스템 '스마트 빅-보드(Smart Big-Board)'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1단계 재난CCTV 109개소 통합에 이은 2단계 추진사업이다.
 올해 기상정보와 예·경보 정보를 통합하고, 2017년에 전북형 '스마트 빅-보드(Smart Big-Board)'가 구축되면 기상정보와 재난CCTV 등 각종 관련 정보를 통합·분석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군 각종 재난정보를 서로 공유 활용함으로써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이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웅변·면접·웃음치료·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와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자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움)
 ③김양욱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